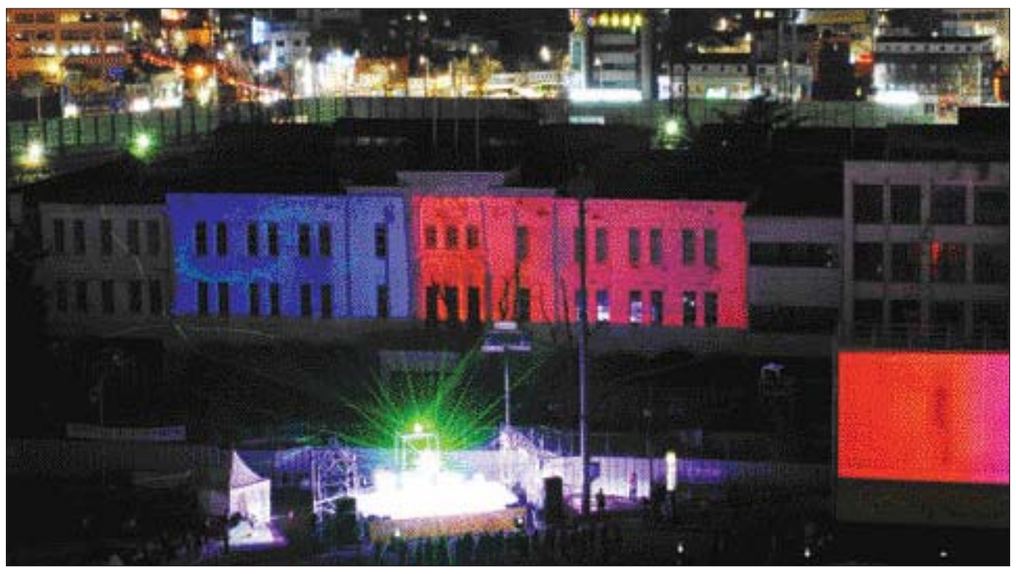


'광엑스포' 옛 도청서 화려한 영상쇼 지난 9일 옛 전남도청에서 진행된 세계 광엑스포 빛축제에서 미디어작가 알렉산더 콜린가 '리오넬 코리아킨' 이이남 작가의 영상쇼 '생명력(Vital Force)'이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아파트 분쟁 40% 이상 관리소장 직무태만 탓"

아파트연합회 광주지부

광주 지역 아파트 관리소장의 직무 소양 부족과 횡포로 인한 분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에서 발생한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분쟁은 1천435건이었고, 이 가운데 관리소장의 직무태만과 횡포 등으로 인한 분쟁이 580건으로 40.4%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공사 계획수립 미숙과 내정가 사전유출 ▲지출성 용역비는 고가, 수입성 잡수입은 저가 계약 ▲관리비 횡령 ▲하자점검업체와 결탁 ▲관리비를 규약대로 부과하지 않아 분쟁 초래 ▲주민 선동 회장교체 ▲직무능력 부족으로 노동청 제소 등이다. 이 밖에도 동대표의 비리와 파행운영 등이 439건, 하자보수 및 보증금 사용 등이 191건 등이었다.

그동안 입주민들이 이같은 각종 불편에 대해 행정기관에 문의를 하더라도 애매한 답변을 듣는 경우가 많고, 사법당국에 진정을 하더라도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광주지부는 밝혔다.

한재용 광주지부장은 "행정 당국이 아파트 관리소장 교육을 관리사협회에 위임하면서 일부 관리소장의 소양과 직무능력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를 위탁이 아닌 직접 교육으로 전환해야 하고 입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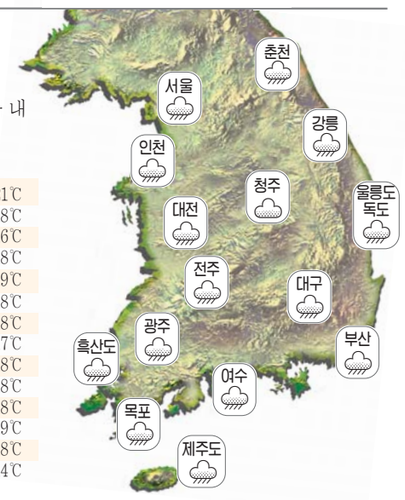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05분 / 해짐 19시 02분 — 달뜸 04시 31분 / 달짐 17시 02분

톡! 톡! 새싹트는 소리

아침 한때 5~10㎜의 비가 내린 뒤 개겠다.

광 주	흐리고 가끔 비	13/21℃
목 포	흐리고 가끔 비	12/18℃
여 수	흐리고 비	12/16℃
완 도	흐리고 비	12/18℃
구 례	흐리고 가끔 비	11/19℃
해 남	흐리고 비	12/18℃
장 흥	흐리고 비	12/18℃
고 흥	흐리고 비	12/17℃
순 천	흐리고 비	11/18℃
영 광	흐리고 가끔 비	12/18℃
진 도	흐리고 비	12/18℃
전 주	흐리고 한때 비	11/19℃
남 원	흐리고 한때 비	9/18℃
흑산도	흐리고 가끔 비	10/14℃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먼바다	북동~동	1.0~2.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5~2.5m
먼바다	북동~동	2.0~4.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황사지수: 보통 / 주의 /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0~1.5m
먼바다	북서~북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1.5~2.5m
먼바다	북~북동	2.0~3.0m

	밀물	썰물
목포	00:47 13:04	06:11 18:25
여수	08:01 20:12	01:45 14:01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3(화)	14(수)	15(목)	16(금)	17(토)	18(일)
최저/최고	8/11	3/13	3/16	4/17	5/18	8/20

투자 확대 대형병원 환자 급증세 환자 뺏긴 동네의사 '페이 닥터'로

의료계 양극화 심화 … 의료빌딩 약국 보증금 무려 15억

이 같은 흐름을 타고 전문병원이나 대형병원들은 수도권 유명 병원의 의료진을 영입하거나 수억원대의 고가 장비를 구비하는 등 공격적인 경영으로 환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장기 불황으로 서민들이 의료비 지출을 줄여 동네의원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 반면 경쟁력이 높은 대형병원들은 투자를 늘린 탓에 경제력 있는 환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의료계는 분석하고 있다.

광주시 서구 B병원은 수개월 전 10억원에 가까운 레이저 기기를 들여온데 이어 최근 서울삼성병원에서 근무중이던 의사를 스카우트하는 등 경쟁 병원과의 차별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C병원도 환자 유치와 서비스 제고를 위해 10억원에 달하는 장비들을 들여옴과 동시에 수억원을 투자해 주차장을 넓혔다.

반면 동네의원들은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전쟁이다.

광주시 광산구 D의원 의사는 물리치료사와 합작으로 개업했으나 1년만에 경영권을 물리치료사에게 넘겨주고 지금은 페이닥터를 하고 있다. 월급쟁이로 전락한 의사들은 아예 폐업을 하거나 2~5명이 공동투자하는 병원급 의원을 개원하는 방안을 찾는 경우가 상당수다.

약국도 대형화 흐름에 가세하고 있다. 광주시 서구 E병원 약국은 보증금이 무려 15억원에 달한다. 동네의원 개원에 1억5천만원에서 2억원 정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의원 10개를 열 수 있는 규모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교장공모' 광주 12·전남 30개교

경쟁률 10대 1 전망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8월 말 정년퇴임 등으로 교장 자리가 비는 전국 768개 초·중·고교 가운데 56%에 달하는 430곳에서 교장공모제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임용되는 공모 교장의 임기는 9월1일부터 2014년 8월까지 4년이다.

임용 예정일을 기준으로 교장자격증이 있고 4년간 교장으로 재임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국·공립 대학교원 제외) 가운데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한다. 교장에 처음 임용되는 경우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이면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광주는 교장 자리가 비는 23개교 중 12개교를, 전남은 60개교 중 30개교에 대해 교장 공모제를 시행한다.

교과부는 교장자격증 소지자 인력풀이 한정돼 있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취지를 맞추기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임용 예정일까지 1천명에게 교장자격연수를 받도록 해 모두 3천140명의 자격증 취득자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이들과 아직 교장 발령을 받지 못한 1천230명이 응모하고 일부 현직 교장까지 가세하면 평균 10대1 안팎의 높은 임용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경찰도 단속한다

앞으로는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뿐만 아니라 경찰 공무원도 단속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시·군·구의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실질적 단속이 어려웠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에 대해 경찰관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화장실용 화장지서 형광물질 배출

소비자시민모임은 시중에서 팔리는 화장실용 화장지와 미용용 화장지 등에 대해 '형광증백제' 검출 시험을 한 결과 4개 화장실용 화장지 제품에서 이 성분이 나왔다고 11일 밝혔다.

검출된 제품은 대형마트의 독자개발 브랜드(PB) 상품인 이마트 3겹 파워쿠션 화장지(이마트), 와이즐렉 세이브 알뜰 화장지(롯데마트), 홈플러스 알뜰상품 화장지(홈플러스) 등 3개 제품과 코디프리미엄 3겹(쌍용C&B) 등이라고 발표했다. /연합뉴스